
한국사회적질학회 창립총회 및 창립학술대회
法古와 知過를 통해 한국사회의 질을 고민하다

- 일시 : 2017년 4월 29일 (토), 14:00~17:00
- 장소 :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문과대학 225호
- 주최 : 한국사회적질학회 창립준비위원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한국사회적질학회 창립총회 및 창립학술대회

[세부일정]

▶ 일시 : 2017년 4월 29일 (토), 14:00~17:00

▶ 장소 : 고려대 인암캠퍼스 문과대학 225호

제1부 창립총회 [14:00-14:50]

- 의장 :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소영 (발기인 대표)
- 사회 : 창립준비위원회 간사 박보영

1. 성원보고_ 창립준비위원회 간사 박보영
2. 창립총회 개회선언_ 창립준비위원장 이소영
3. 창립준비위원장 인사_ 창립준비위원장 이소영
4. 창립 경과보고_ 창립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엄재근
5. 안건 심의 및 의결_ 창립준비위원장 이소영 / 간사 박보영
 - 제1호 안건 : 회칙(안)에 대한 토의 및 승인
 - 제2호 안건 : 학회장 선출
 - 제3호 안건 : 회장단 임명제청 및 승인
 - 제4호 안건 : 이사 임명제청 및 승인
6. 기타 안건 토의_ 창립준비위원장 이소영
7. 폐회선언_ 창립준비위원장 이소영
8. 임명장 수여_ 창립준비위원장 이소영 / 학회장 당선자
9. 초대 학회장 인사말 및 운영위원회 소개_ 학회장 당선자

제2부 창립학술대회 | 法古와 知過를 통해 한국사회의 질을 고민하다 [15:00-17:00]

시간	구분	내용
15:00~15:10	개회선언 및 축사	• 회장 : 이소영 (한중대)
15:10~15:40	주제발표 1	역사를 통해 본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정신 • 발표 : 엄재근 (새공공협력원) • 토론 : 송시형 (국제사이버대) • 사회 : 이소영 (한중대)
15:40~15:50	휴 식	
15:50~16:20	주제발표 2	21세기 초 한국소설에 나타난 노인문제 • 발표 : 양윤모 (극동대) • 토론 : 오양진 (추계예술대) • 사회 : 이소영 (한중대)
16:20~16:30	휴 식	
16:30~17:00	종합토론 및 폐회선언	• 회장 : 이소영 (한중대)

[목 차]

창립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제1부 창립총회 | 자료

1. 학회창립 경과 및 관련자료	7
2. 회칙(안)	13
3. 회장단 후보자 및 이사진 후보자 소개	19

제2부 창립학술대회 | 法古와 知過를 통해 한국사회의 질을 고민하다

□ 주제발표 1

역사를 통해 본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정신	23
▶ 발표 : 엄재근 (사단법인 공공협력원)	
▶ 토론 : 송시형 (국제사이버대학교)	

□ 주제발표 2

21세기 초 한국소설에 나타난 노인문제	39
▶ 발표 : 양윤모 (극동대학교)	
▶ 토론 : 오양진 (추계예술대학교)	

제1부 창립총회

총회자료

(가칭)한국사회적질학회 발기인 명단

○ 아래의 발기인들이 하기와 같이 발기모임을 가짐.

- 일시 : 2017년 2월 1일, 오후 3시
- 장소 : 고려대 안암캠퍼스 문과대학 3148호
- 내용 : (가칭)한국사회적질학회 창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발족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생년월일	서명
1	권진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원	1974. 10. 1.	권진욱
2	김근면	강릉원주대 교수	1971. 7. 28.	김근면
3	박보영	극동대 교수	1977. 4. 7.	박보영
4	박승민	차 의과학대 교수	1980. 7. 28	박승민
5	송시형	국제사이버대 교수	1977. 9. 7.	송시형
6	양윤모	극동대 교수	1967. 12. 12.	양윤모
7	엄재근	(사)공공협력원 학술위원장	1968. 4. 20	엄재근
8	이소영	한중대 교수	1962. 2. 18	이소영
9	이장욱	우송대 외래교수	,	이장욱

*주 : 이상 가나다순

창립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 일자 : 2017년 3월 18일, 14:00
- 장소 : 고려대 대학원 102호
- 참석 : 권진욱, 김근면, 박보영, 박승민, 송시형, 양윤모, 엄재근, 이소영 (이상 가나다순)
- 불참 : 이장욱(위임)

□ 안건 1 : 학회 회칙(안)

- 학회 회칙(안) 검토 ☞ 별첨자료 참조

□ 안건 2 : 학회 집행부(안)

1. 회장단 후보

- 회장 후보 : 한중대 이소영 교수(창립준비위원장)
- 부회장 후보 : 사단법인 공공협력원 엄재근 박사(창립준비부위원장)
- 감사 : 우송대 교양교육원 이장욱 선생 ☞ 구두 위임 및 동의

2. 집행부 직제(안) 및 인선(안)

- 1) 집행부 직제(안) : 총무이사, 편집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홍보이사
- 2) 집행부 인선(안)
 - 총무이사 : 극동대 박보영 교수 (창립준비위 간사)
 - 편집이사 : 차 의과학대 박승민 교수 (창립준비위원)
 - 기획이사 : 국제사이버대 송시형 교수 (창립준비위원)
 - 학술이사 : 극동대 양윤모 교수 (창립준비위원)
 - 교육이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권진욱 선생 (창립준비위원)
 - 홍보이사 : 강릉원주대 김근면 교수 (창립준비위원)

□ 안건 3 : 창립총회 및 창립학술대회 개최 논의

1. 일자 및 장소
2. 창립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발표자
3. 행사준비 업무 및 비용 분담

□ 안건 4 : 학회지 발간

1. 학회지 명칭(안)
 - 한국명 : 〈사회적 질 연구〉
 - 영어명 : *Kor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2. 학회지 발간 횟수 및 시기
 - 발간횟수 : 연간 2회
 - 발간시기 : 상반기(매년 6월 30일), 하반기(매년 12월 30일)
 - 기타 : 학회지 저널 홈페이지 별도 운영
3.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사업 대비
 -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사업(신규) 지침 및 설명자료 검토
 - 한국연구재단 KCI 홈페이지에 학회 공식 등록

□ 안건 5 : 기타

- 제2차 회의 일자 및 장소 확정
- 기타 안건 토의

창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 일자 : 2017년 4월 15일, 14:00
- 장소 : 고려대 대학원 103호
- 참석 : 권진욱, 박보영, 송시형, 양윤모, 엄재근, 이소영, 이장욱 (이상 가나다순)
- 불참 : 김근면(위임), 박승민(위임)

□ 안건 1 : 창립총회 및 창립학술대회 일정 확정

1. 일시 : 2017년 4월 29일 (토), 오후 2시~5시
2. 장소 :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문과대학 225호
3. 주제 : 법고(法古)와 지과(知過)를 통해 한국사회의 질을 고민하다
4. 발표
 - 주제발표 1 :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역사적 접근
 - 주제발표 2 : 소설을 통해 본 2000년대 한국의 노인문제

□ 안건 2 : 학회지 발간 사업 파트너 업체 선정

1. 업체명 : (주)코리아스칼라
2. 서비스 : 학회 홈페이지 제작, 학회 저널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DOI 발급 및 DB 서비스
3. 비용
 - 메인 홈페이지 및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 구축비용 50만원, 유지보수비용 월 4만원
 - 저널 홈페이지 : 구축비용 25만원, 유지보수비용 월 1만원

□ 안건 3 : 기타

- 창립학술대회 준비 사항 총점검
- 기타 안건 토의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칙

제정 : 2017.04.29.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사회적질학회(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배금주의와 시장근본주의를 낳은 경제성장 일변도의 사회발전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둔 사회발전을 연구·조사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존엄과 웰빙,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을 연구·개발·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회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제간 연구와 융복합 연구를 지향하며, 이 과정에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애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있는 곳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본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행복, 존엄, 웰빙 등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조사
2.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학술대회와 강연회, 심포지엄 등의 개최
4.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본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 (기구) 본회는 민주적·합리적 의사결정과 제4조의 사업들을 위하여 다음의 의결·심의·집행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연구윤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각종 분과 위원회
 - ① 편집(분과)위원회
 - ② 분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 사항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한(限)한다. 대학에서 인간의 행복, 존엄, 웰빙 등 사회적 가치의 증진과 관련된 전공분야(예컨대 정치·사회·경제, 보건·복지·의료, 문·사·철 등)를 이수한 자. 또는 대학, 교육·연구·행정기관 등에서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혹은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전개 중인 자.
2. 준회원은 사회적 가치의 증진과 관련된 전공(제6조 1항 참조)을 이수 중인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본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로 한다.
4. 단체회원은 사회적 가치의 증진을 추구하는 교육·연구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또는 평생회비)와 가입비를 납부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제6조에 의거 각기 회원등급을 가지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학회 제반 업무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제4조에 규정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소정의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구분)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회장 1인
3. 부회장 2인 내외
4. 감사 2인 내외
5. 이사 20인 내외

제10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2. 고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다만, 회장을 역임하지 않은 인사라 할지라도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고문에 위촉할 수 있다.
3. 부회장과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4. 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역할) 임원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사회의 추인을 받은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이사는 소정의 이사회비를 납부하며, 학회의 세부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이사는 운영위원회

의 업무를 담당할 운영이사와, 소속기관이 속한 권역에서 학회의 저변 확대 사업을 담당할 일반이사(지역이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직역에 따른 이사의 구분 및 임명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다만, 회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다음과 같이 겸직을 금한다.

1. 회장은 다른 학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2. 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제14조 (간사) 본회는 실무보조를 위해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소집한다. 다만,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총회의 통지)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으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위임을 받은 부회장이 총회의 의장을 맡는다.

제19조 (총회의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3. 임원 선출 및 임면에 대한 추인
4. 결산의 승인
5. 감사의 승인
6. 이사회가 발의한 안건에 대한 의결
7. 학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회칙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총회의 의결) 총회원(정회원)의 1/3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정회원은 서면 위임장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 위임장은 총회의 출석인원과 의결에 포함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21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

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 과 '총회에서 선출한 정회원 3인 이상' 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 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1/3 이상의 이사들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 (이사회 의 구성) 이사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된다.

제24조 (이사회 의 의장) 이사회 의 의장은 회장이 맡으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위임을 받은 부회장이 이사회 의 의장을 맡는다.

제25조 (이사회 의 의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한 이사는 서면 위임장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 위임장은 이사회 의 출석원과 의결에 포함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26조 (이사회 의 역할) 이사회 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사업 보고, 결산에 대한 심의
2. 회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심의
3.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심의
4. 총회 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5. 회칙으로 이사회 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회원의 신상필벌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학회 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운영위원회

제27조 (운영위원회 의 목적) 본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제28조 (운영위원회 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운영위원들(운영이사들)로 구성된다.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편집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홍보이사.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고문이나 일반이사(지역이사)도 운영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29조 (운영위원회 의 역할) 운영위원회 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제6조에 규정된 회원의 연회비와 평생회비, 가입비의 금액을 결정한다.
2.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3. 학회지 및 간행물의 원활한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4. 편집위원회(분과위원회)와 관련한 제반 비용을 결정한다.
5. 그 밖에 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제30조 (운영위원회 의 직무) 제5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이사는 본회 의 회계와 예산, 사무를 관장한다.

2.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분과위원회)의 장(長)을 겸하며 본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기획이사는 본회의 연간 사업과 활동계획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학술이사는 본회의 학술연구사업 및 학술대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5. 교육이사는 본회의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홍보이사는 본회의 대외협력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1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운영위원의 1/3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된다.

제7장 연구윤리위원회

제3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목적) 본회는 지적 재산권 보호와 바람직한 연구문화 창달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3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윤리위원회의 장(長)은 운영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는 자가 맡는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에 피소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3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에 피소된 자의 연구물에 대하여 표절 여부 등을 심의한다.
3.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를 검증한다.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 본회는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거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장(長)은 운영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는 자가 맡는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 또는 회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한다.
5. 임원 선거 출마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3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선거 전반을 주관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후보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계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임원 선거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에 입후보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임원 선거 실시 후 그 결과를 본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한다.

제9장 재 정

제38조 (재정) 본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한다.

1. 회원의 연회비·평생회비, 이사의 연회비
2. 국가기관 및 관련단체의 지원금
3. 기타 기부금 및 후원금

제39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이듬 해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7년 4월 29일(제정)부터 시행된다.

제2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단 후보자 소개

연번	직 책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공
1	회장	이소영	한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학
2	부회장	엄재근	사단법인 공공협력원 학술위원장	경영학
3	감사	이장욱	우송대 교양교육원 외래교수(강사)	사회복지학

한국사회적질학회 이사진 후보자 소개

연번	직 책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공
1	총무이사	박보영	극동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사회정책학
2	기획이사	송시형	국제사이버대 엔터테인먼트학과 조교수	사회학
3	홍보이사	김근면	강릉원주대 간호학과 부교수	간호학
4	교육이사	권진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원	정치/행정학
5	학술이사	양윤모	극동대 교양대학 부교수	국문학
6	편집이사	박승민	차의과학대 일반대학원 고령친화산업학과 조교수	사회학

제2부 창립학술대회

주제발표

法古와 知過를 통해 한국사회의 질을 고민하다

[주제발표 01]

역사를 통해 본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정신

- 엄재근([새]공공협력원)

[주제발표 02]

21세기 초 한국소설에 나타난 노인문제

- 양윤모(극동대학교)

역사를 통해 본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정신 -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중심으로 -

엄재근
(사단법인 공공협력원 학술위원장)

I. 서론

최근 기업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회에서 기업들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과거에는 없던 '착한 기업', '나쁜 기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착한 기업'이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말하고, '나쁜 기업'은 '착한 기업'과는 다르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말한다. 과거에는 모두가 '잘 살아보자'는 일념 하에서 기업들도 외형적인 성장에 노력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한국에서는 '나눔과 공유'라는 새로운 시대의 이념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양창삼(2007)은 IMF 이후 심화되는 빈부의 대물림에서 사회구성원들의 나눔의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사회는 하나의 생태계이며 전체 개체들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각 개체들의 생태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질(social quality)이 높다는 것은 생태계가 풍요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은하(2011)는 생태계는 하나의 대상을 고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독립적 환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엄재근(2016)은 전통문화 속에서 생태계를 통하여 사회가 풍요로워진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이다. Noblesse Oblige(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어로서 '고귀한 신분(귀족)'이라는 노블레스와 '책임이 있다'는 오블리주가 합해진 것이다. 1808년 프랑스 정치가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송용근, 2007). 당시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등장 등 어수선한 사회

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어 사전 『르 프티 로베르(Le Petit Robert)』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 “귀족 계급이란 자신의 이름에 명예가 되는 의무를 (스스로) 만들어낸다(La noblesse cree le devoir de faire honneur a son nom)”라고 풀이했다. 민중서림의 『불한사전』은 “양반은 양반답게 처신해야 한다” (격언)고 풀었고, 『뉴에이스 영한사전』은 “높은 신분에 따르는 정신적 의무”라고 설명하고 있다²⁾. 간혹 문헌에 따라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표기하는데 2002년 국립국어연구원의 프랑스어 표기법에 따라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통일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한국형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사상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한국의 역사 속에 있는 나타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대해서, IV장에서는 한국 역사에서 대표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하기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역사적으로 요구되어 오던 정신이다. 로마공화정에서는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호민관이나 집정관 등의 공직자가 될 수 없었다. 이러한 로마의 귀족들이 사회적 의무를 충실하게 함으로 로마가 강력한 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윤승준, 2002).

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의 하나로서 백년전쟁에서 유래된 이야기가 많이 인용된다. 14세기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는 백년 전쟁이 있었다. 당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칼레를 점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끈질기게 저항하는 프랑스 칼레를 마침내 점령하였다. 그리고 에드워드 3세는 마음 같아서는 칼레 시민들을 바로 몰살하고 싶었지만 잔인한 조건을 걸었다. 시민들중 6명을 뽑아오면 그들만 처형하겠다고 하였다. 이때 도시의 최대 거부였던 생피에르가 제일 먼저 자원하였고 연이어서 칼레의 부호, 귀족, 법률가 등이 자원하였다. 이에 감복한 에드워드 3세는 관용을 베풀었고 이 역사에 대한 기록은 사회지도층이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진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³⁾.

항상 사회에는 사회의 지도층들이 있었다. 한민족의 역사 시대에도 사회지도층이 있었다. 삼국

1) 네이버 지식백과. [오목대] 노블레스 말라드, 『전북일보』, 2008년 2월 29일.

2) 네이버 지식백과. 설원태, 「李정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경향신문』, 2008년 3월 10일.

3) 위키피디아에서 발췌함. https://ko.wikipedia.org/wiki/노블레스_오블리주

시대에 귀족들과 신라의 화랑들이 있었고, 고려시대에 귀족들도 있었다. 고려말부터 신진 사대부들이 사회의 지도층으로 등장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유학사상으로 무장한 사대부들이 사회의 지도층으로 사회를 주도하였다. 사회 지도층들은 일반 서민들의 존경을 받고 사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맞게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댓가를 받는다. 사회 지도층들이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회가 사회적 질이 높은 사회일 것이다.

〈표 1〉 사회지도층에 관한 개념 정의⁴⁾

학자	사회지도층에 관한 개념
Pareto(1923)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했거나 직업서열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소수의 개인 중 통치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
Cole(1995)	공정으로 임명된 수장뿐만 아니라 소속 집단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Lipset & Solari(1996)	경제, 정부, 군사, 정치, 종교, 전문직 분야 등 사회 핵심적 분야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Lenski(1966)	사회 구성원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하며 권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회계층
Bottomore(1964)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능적, 전문적인 집단
Keller(1968)	개인의 탁월성에 의해 사회의 나머지 부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소수의 집단

위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의 각 분야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계층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권력, 부, 혹은 명예 등의 한 가지 이상을 갖고 있으며 책임을 갖은 영역이다(이정주·이선중, 2013). 손용근(2007)은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가 바뀌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대상과 성격이 약간씩 변화되어 왔다고 설명하였다. 과거 신분제습제도에서 주어진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현대에 와서는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거나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실천해야 할 도덕적, 정신적 의무로 볼 수 있다. 현대에는 소유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여론을 주도한다는 위치에서 보면, 연예인들에 대한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요구도 매우 높은 편이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Huntington(1965)이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이 그 사회의 부정부패의 척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정주와 이선중(2012)은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인식유형과 역할상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연구는 인문사회학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경영학 측면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4) 이정주와 이선중(2013)이 반부패시스템연구소(2006)의 글을 표로 재구성한 것을 인용함.

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이론은 사회가 변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CSR에 대한 연구는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Bowen(1953)이 연구한 이후로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Friedman(1970)의 대리이론으로부터, Freeman(1984), Jones(1995) 등의 이해관계자이론, Hart(1995), McWilliams 등(2002)의 자원기반이론으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Baron(2001), Feddersen과 Gilligan(2001), McWilliams와 Siegel(2001) 등의 기업이론, Waldman 등(2004), Rothenberg와 Zyglidopoulos(2007), Kivima(2007) 등의 전략적 리더십이론, Brown 등(2006)의 가치확대이론 등의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기도 하였다(정용기, 2012).

기업을 대표하는 최고경영자 혹은 소유자 들은 사회지도층에 속하고 있고 이들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CSR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중요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엄재근과 설원식(2014)은 사회생태계 입장에서 기업들의 플랫폼 정신을 강조하였다.

III. 한국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의 개요

한국의 역사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들로 제주도의 김만덕 사례, 경주 최씨 부자 사례, 유일한 박사 사례 등으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회지도층의 전 반적인 사상으로 볼 수 없고 개인적이거나 한 집안의 사례로 국한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한국 역사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사회지도층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사상을 잃게 되면 끊임없이 나라는 불안해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게 된다. 국가의 부국강병은 해당 사회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에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국가의 재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보면,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의 계보를 정리해보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에 대한 탐색적 연구일 것이다. 이천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흐르고 있던 사상의 3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삼국시대의 통일을 이룰 수 있던 것은 화랑정신의 영향을 미쳤다. 화랑정신은 통일 시대를 이루었고 신라를 천년 왕조로 버틸 수 있게 한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었다. 고려시대에 고려라는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게 하였다. 훈요6조에는 고려의 국제 행사인 연등과 팔관회에 대해서 군신이 동락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서 많은 국가들의 상인들이 참여하므로 개경을 국제도시로 성장하게 하였다. 고려시대의 훈요 10조는 왕실의 유훈이고 담고 있는 내용도 많은 부

분 통치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이라기 보다는 왕실의 통치 이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담고 있는 근간에는 태조 왕건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2〉 한국 역사에서 나타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

시대	역사적 시기	핵심 사상	사상의 유래	핵심 내용	사회적 결과
신라 시대	서기 57년~935년	화랑정신	신라 26대 진평왕 때 불교 원광법사가 정리	사군이충(事君以忠) 사친이효(事親以孝) 교우이신(交友以信) 임전무퇴(臨戰無退) 살생유택(殺生有擇)	삼국통일과 천년 왕조의 영광
고려 시대	서기 918년 ~ 1392년	훈요10조	고려 태조의 불교, 토속, 도교 등의 사상 반영	고려 왕실의 헌장으로 왕족들의 통치 사상	활발한 무역 활동으로 세계에 고려라는 이름을 알림. 고려청자와 팔만대장경 등 수많은 문화재 남김
조선 시대	서기 1392년 ~ 1910년	선비사상	공자(BC 551~479)시대 유가철학으로부터 발전	수기치인(修己治人), 사생취의(捨生取義), 건리사의(見利思義), 지행일치(知行一致), 술선수범(率先垂範), 출처관(出處觀)	조선왕조 500년의 번영

부패한 사회지도층을 몰아내고 조선시대를 연 것은 조선의 사대부들이었다. 이들은 선비 사상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근간을 세웠고, 고려의 사회지도층의 부패함이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 따라서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 노력했던 것에 왔음을 깨닫고 선비 사상으로 먼저 사회지도층인 자신들의 정신적 무장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상이 조선시대의 태평성대 시대를 이끌 수 있었다. 하지만 태평성대에 따른 무(武)와 상업의 경시로 전쟁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선비 정신은 임진왜란에서 의병 운동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V.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 사례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어원이 외국에서 온 만큼 한국의 역사 속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많지는 않다. 하지만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례는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의 건강함을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되어 진 정신이다. 역사적으로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단일 민족으로 한민족이 만주를 비롯한 한반도에서 찬란한 문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 속에 흐르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있어서 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한국 역사 속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사례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의 사상과 철학 속에 녹아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볼 수 있다.

1. 화랑의 세속오계

화랑제도는 왕족인 진골 출신의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화랑과 신분에 제한이 없는 낭도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그들의 지도이념은 원광법사가 지은 세속오계이다(김영균, 1995). 세속오계는 공동체적인 전통과 유불사상에 무사정신이 담겨져 있다. 600년(진평왕 22) 원광이 중국 수(隋)나라에서 돌아와 운문산(雲門山)에 있을 때, 귀산(貴山)과 추항(籌項) 두 사람이 가르침을 청하였고, 이에 원광은 사군이충(事君以忠)·사친이효(事親以孝)·교우이신(交友以信)·임전무퇴(臨戰無退)·살생유택(殺生有擇) 등 5가지 계율을 가르쳤고 이는 화랑의 주요한 정신이 되었다⁵⁾.

사군이충(事君以忠) :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기는 일

사친이효(事親以孝) : 효도로써 아버이를 섬기는 일

교우이신(交友以信) : 신의로써 친구를 사귀

임전무퇴(臨戰無退) : 전쟁에 나아가서 물러나지 아니함

살생유택(殺生有擇) : 가려서 살생하는 일

화랑정신은 사회지도층의 중심이 될 청소년들의 정신적 이념이 되었고 이는 신라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었다. 화랑도는 이를 숭수수범하였고 신라를 통일 국가로 이끌었다. 화랑 출신인 김유신은 통일을 이끈 대표적인 장수였고, 백제와의 황산벌 싸움을 승리로 이끌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세속오계에서 발췌함.

게 된 관창 역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관창은 어린 나이에 적진에 뛰어들어 백제의 포로가 되었고, 풀려나와서도 다시 적진에 뛰어들어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다. 관창의 죽음으로 계백장군에 대한 두려움에 떨던 신라군들이 결사의 각오를 갖게 되고 백제군을 대파하게 되었다(권덕영, 2012).

화랑정신이 살아 있을 때 신라의 중흥이 이루어졌지만 점차 화랑정신이 퇴색되고 사회지도층이 부패하고 타락하였을 때, 그 사회는 망하고 만다. 신라 역시 천년 왕국의 끝은 화랑의 부패함과 귀족들의 타락으로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2. 고려 태조의 훈요 10조

부패와 타락으로 무너진 신라를 대신해서 일어난 국가는 고려이다. 훈요10조는 고려태조가 자손들을 훈계하기 위해 942년(태조25년)에 본인의 신앙, 사상, 정책, 규범 등을 정리해서 남긴 글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무너진 신라 귀족 사회를 보고 고려의 태조는 훈요 10조로 고려 왕실이 따라야 할 교훈으로 남겼다.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⁶⁾.

- ① 훈요1조 : 국가의 대업은 여러 부처의 호위를 받아야 하므로 선(禪)·교(敎) 사원을 개창한 것이니, 후세의 간신(姦臣)이 정권을 잡고 승려들의 간청에 따라 각기 사원을 경영, 쟁탈하지 못하게 하라.
- ② 훈요2조 : 신실한 사원은 (신라 말의) 도선(道詵)이 산수의 순(順)과 역(逆)을 점쳐놓은 데 따라 세운 것이다(즉 『도선비기(道詵秘記)』에 점쳐놓은 산수순역에 의하여 세운 것이라는 뜻). 그의 말에, “정해놓은 이외의 땅에 함부로 절을 세우면 지덕(지력)을 손상하고 왕업이 깊지 못하리라” 하였다. 후세의 국왕·공후(公侯)·후비(后妃)·조신 등이 각기 원당(願堂)을 세운다면 큰 걱정이다. 신라 말에 사탑을 다투어 세워 지덕을 손상하여 나라가 망한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라.
- ③ 훈요3조 : 왕위계승은 맏아들로 함이 상례이지만, 만일 맏아들이 불초할 때에는 둘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그러할 때에는 그 형제 중에서 중망을 받는 자에게 대통을 잇게 하라.
- ④ 훈요4조 : 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당(唐)의 풍속을 숭상해 예악문물(禮樂文物)을 모두 거기에 좃고 있으나, 풍토와 인성(人性)이 다르므로 반드시 같이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거란(契丹)은 금수의 나라이므로 풍속과 말이 다르니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라.

6) 훈요십조 [Hunyoosipjo, 訓要十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췌함.

- ⑤ 훈요5조 : 나는 우리나라 산천의 신비력에 의해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였다. 서경(西京: 평양)의 수덕(水德)은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을 이루고 있어 길이 대업을 누릴 만한 곳이니, 사중(四仲: 子·午·卯·酉가 있는 해)마다 순수(巡狩)하여 100일을 머물러 안녕(태평)을 이루게 하라.
- ⑥ 훈요6조 : 나의 소원은 연등(燃燈會)과 팔관(八關會)에 있는 바, 연등은 부처를 제사하고, 팔관은 하늘과 5악(岳)·명산·대천·용신(龍神) 등을 봉사하는 것이니, 후세의 간신이 신위(神位)와 의식절차의 가감(加減)을 건의하지 못하게 하라. 나도 마음속에 행여 회일(會日)이 국기(國忌: 황실의 祭日)와 서로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니, 군신이 동락하면 서 제사를 경건히 행하라.
- ⑦ 훈요7조 : 임금이 신민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그 요체는 간언(諫言)을 받아들이고 참소를 멀리하는 데 있으니, 간언을 좇으면 어진 임금이 되고, 참소가 비록 꿀과 같이 달지라도 이를 믿지 아니하면 참소는 그칠 것이다. 또, 백성을 부리되 때를 가려 하고 용역과 부세를 가벼이 하며 농사의 어려움을 인다면, 자연히 민심을 얻고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편안할 것이다. 옛말에 “향긋한 미끼에는 반드시 고기가 매달리고, 후한 포상에는 좋은 장수가 생기며, 활을 벌리는 곳에는 새가 피하고, 인애를 베푸는 곳에는 양민이 있다” 고 하지 아니하였는가. 상벌이 공평하면 음양도 고를 것이다.
- ⑧ 훈요8조 : 차현(車峴) 이남, 공주강(公州江) 외(外)의 산형지세가 모두 본주(本主)를 배역(背逆)해 인심도 또한 그러하니, 저 아랫녘의 군민이 조정에 참여해 왕후(王侯)·국척(國戚)과 혼인을 맺고 정권을 잡으면 혹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혹 통합(후백제의 합병)의 원한을 품고 반역을 감행할 것이다. 또 일찍이 관노비(官奴婢)나 진·역(津驛)의 잡역(雜役)에 속했던 자가 혹 세력가에 투신하여 요역(徭役)을 면하거나, 혹 왕후·궁원(宮院)에 붙어서 간교한 말을 하며 권세를 잡고 정사를 문란하게 해 재변을 일으키는 자가 있을 것이니, 비록 양민이라도 벼슬자리에 있어 용사하지 못하게 하라.
- ⑨ 훈요9조 : 무릇 신료들의 녹봉은 나라의 대소에 따라 정할 것이고 함부로 증감해서는 안 된다. 또 고전에 말하기를 “녹은 성적으로써 하고 임관은 사정으로써 하지 말라” 고 하였다. 만일 공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친척과 가까운 자에게 까닭 없이 녹을 받게 하면 백성들의 원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 역시 복록을 오래 누리지 못할 것이니 극히 경계해야 한다. 또 이웃에 강푹한 나라가 있으면 편안한 때에도 위급을 잊어서는 안 되며, 항상 병졸을 사랑하고 애달피 여겨 요역을 면하게 하고, 매년 추기(秋期) 사열(査閱) 때에는 용맹한 자에게 마땅히 (계급을) 승진시킬지이다.
- ⑩ 훈요10조 : 국가를 가진 자는 항상 무사한 때를 경계할 것이며, 널리 경사(經史)를 섭렵해 과거의 예를 거울로 삼아 현실을 경계하라. 주공(周公)과 같은 대성도 「무일(無逸)」

(인일, 방심하지 말라는 글) 1편을 지어 성왕(成王)에게 바쳤으니, 이를 써서 붙이고 출입할 때마다 보고 살피라.

위의 내용들을 보면 통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고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사상을 가늠해볼 수 있다. 각 조들 속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귀감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훈요 2조에서는 ‘신라 말에 사탐을 다투어 세워 지덕을 손상하여 나라가 망한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라고 하였다. 신라가 망한 원인을 사회지도층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개인의 사사로운 이득에 연연하였기 때문이라고 경고 하고 있다.

훈요 5조에서는 ‘사중(四仲: 子·午·卯·酉가 있는 해)마다 순수(巡狩)하여 100일을 머물러 안녕(태평)을 이루게 하라’ 고 하여 적극적으로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을 권하였다.

훈요 6조에서는 ‘군신이 동락하면서 제사를 경건히 행하라’ 하여 국가행사에서 나서서 즐기기도는 경건히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훈요 7조에서는 전체 내용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권장하고 있다.

훈요 9조에서는 ‘만일 공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친척과 가까운 자에게 까닭 없이 녹을 받게 하면 백성들의 원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 역시 복록을 오래 누리지 못할 것이니 극히 경계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훈요 10조에서는 ‘국가를 가진 자는 항상 무사한 때를 경계할 것이며, 널리 경사(經史)를 섭렵해 과거의 예를 거울로 삼아 현실을 경계하라’ 고 권장하고 있다.

위의 훈요 10조가 태조 왕조가 왕실에 남긴 글이기는 하지만 후에 신하들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준 규범이 되었으므로 고려의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사회지도층들이 이를 귀감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3. 조선 사대부들의 선비 정신

고려말 당시 사회지도층이었던 귀족, 승려들의 부패함이 크고 이에 대해서 신진 사회지도층이었던 사대부들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지도층의 교체가 필요했다. 이들은 결국 조선을 개국하는 주체 세력이 되었고, 조선 왕조가 500여년 동안 굳건하게 버틸 수 있게 만들었다.

선비는 한자어로 사 또는 유로서 이는 모두 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변창구, 2016). ‘선비’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천자·제후·대부·사·서인의 신분적 계층개념으로서, 여기서 ‘사(士)’는 대부와 묶어서 ‘사대부(士大夫)’라 일컬어지며, 관직을 담당한 유학자로서 지배계층을 이루고 있으며, ‘사’는 지위가 높아지면 ‘대부’로 오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대부’의 신분계급적 성격과 달리 도학이념의 인격적 주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군자(士君子)’라 일컫는 것이다. 조선시대 도학의 ‘선비’ 개념은 ‘사대부’라는 신분계층 개념보다는 ‘사군자’라는 인격개념을 기본으로 확립하여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비’ 개념이 전통적으로 중국 역사에서부터 조선시대에까지 유교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자는 뜻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살신성인(殺身成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곧 뜻 있는 선비는 생명을 걸고 추구할 만한 도덕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며, 살아가기 위해 도덕을 저버린다면 선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맹자는 선비를 궁색할 때에도 의로움을 잃지 않고 출세한 뒤에도 도리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곧 선비는 의(義)와 도(道)를 가치기준으로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대부들은 유교 철학을 굳건한 사상으로 갖고 있고 ‘성리학적 명분 사회’를 이끌어 갔다. 이러한 선비 정신은 임진왜란에서는 의병장들이 나왔고 조선 강점기에는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선비는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네이버 국어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선비는 새로운 사상과 문화, 정치의 리더들이었다. 새로운 사상과 문화와 정치의 리더로서 사림이 주축이 되었다. 선비 사상은 조선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조광조는 선비가 이 세상에 나서 학문을 본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포부를 펴서 백성이 살아가는 것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함으로 사회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층으로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퇴계는 선비란 ‘재물로 유혹하더라도 인으로 대응하고, 직위로 억눌러도 의로 대처한다’고 언급하여 선비의 굽힐 수 없는 당당한 지조와 신념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선비 정신의 핵심은 수기치인(修己治人), 사생취의(捨生取義), 견리사의(見利思義), 지행일치(知行一致), 솔선수범(率先垂範), 출처관(出處觀)으로 설명할 수 있다(변창구, 2016). 물질적인 욕망을 버리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려야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갖고 세상을 바르게 경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V. 결론

최근 갑질 논쟁이 심하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은 우월한 위치에 서있는 인물이고 갑이 우월

7) 선비개념과 사림파(士林派) (한국유학의 탐구, 1999. 6. 10., 서울대학교출판부)에서 발췌함.

한 위치에서 불평등한 조건이나 행동을 내세우게 되면 갑질한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갑질이 주로 사회지도층에서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일반 서민들의 저항이 심한 것이다. 몇 년 전 대기업의 소유주의 자녀이자 해당 회사의 임원이 일으킨 항공사의 땅콩회항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매우 심했다. 일단 내용을 떠나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적 반발감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해방 이후 육이오를 거치고,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잘 살아보세' 라는 새마을 운동의 기치아래 부를 이루어 왔다. 이제 OECD 국가로서 부유한 국가로서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의 자원봉사 활동과 대외적으로 개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기일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눔과 실천을 강조하는 분위기이고 실천하고 있지만 이렇다고 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사상이 없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퍼져있는 일반시민의 나눔의 이론과 실천은 사회지도층의 나눔과 실천과는 의미가 다르게 보여진다. 시민 사회에서 시민에게 요구되는 나눔과 실천과는 다르게 사회지도층에 대한 나눔과 실천은 어떤 사회에서든지 사회의 혜택이 사회지도층에게 일부분 집중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집중이 심화되면 사회의 갈등이 심해지고 사회의 질은 형편없이 나빠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심각하게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CSR은 최근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기업의 좋은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마케팅의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사회 전반에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에 대해서 고찰해보아야 할 시기이다. 송용근(2007)은 노블레스만 있고 오블리주는 없는 국가는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하였다. 계층간의 갈등은 국가의 행정적 정책이 해결해줄 수 없다. 계층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아무리 복지 정책이 좋아지더라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고 언제까지 나라의 부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사상적으로 무장시켜야 할 적기이다.

본 논문은 사회적 질의 건강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시급한 시점에 시의적절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피에 흐르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조명 한 부분에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관련되어 있는 더 많은 사상과 사례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사회에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깊이 뿌리 내려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문헌자료

- 권덕영. 2012. “화랑 관창의 추억” , **신라사학보**, 24, 51-88.
- 김영균. 1995. “세속오계와 노블레스 오블리즈” , **국토연구원**, 44.
- 금장태. 1999.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변창구. 2015. “퇴계 이황의 선비정신과 출처관” , **민족사상**, 9(4), 105-106.
- 변창구. 2016. “제4장 선비정신의 현대적 의의와 발전방안” , **민족사상**, 10(1), 105-133.
- 손용근. 2007. “노블레스 오블리주” , **한양법학**, 21, 167-174.
- 엄재근. 2016. “전통 문화마을의 플랫폼전략 사례 연구: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 **한국융합 인문학**, 4(3), 7-27.
- 엄재근·설원식. 2014. “이머징마켓에서의 기업생태계 추진을 위한 이랜드차이나의 플랫폼 전략 사례 연구 : SPICE와 CPNT의 십자가형 아키텍처 모델을 통한 분석” , **경영컨설팅연구**, 14(4), 201-212.
- 양창삼. 2007. “나눔의 경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사회이론**, 32, 7-33.
- 윤승준. 2002.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무엇인가-서양사에서의 노블레스와 도덕적 의무” , **사회비평**, 34, 177-192.
- 이계안. 2009. **누가 칼레의 시민이 될 것인가**, 위즈덤하우스.
- 이정주, 이선중. 2013.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인식유형 파악을 통한 역할상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4), 191-218.
- 정용기. 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성과요인과 지속성장성 예측” , **대한경영학회지**, 25(4), 2065-2089.
- 조은하. 2011. “디지털 시대의 문화생태계” , **한국학연구**, 37, 113-138.
- Baron, D. 2001. “Private politic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integrated strategy”,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trategy*, 10, 7-45.
- Bown. H. 1953.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Y: Harper & Brother.
- Brown, W. O., E. Helland and J. K. Smith. 2006. “Corporate philanthropic practices”,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12, 855-877.

- Friedman, M. 1970.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Magazine*, September, 13.
- Feddersen, T. and T. Gilligan. 2001. "Saints and markets: Activists and the supply of credence goods",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trategy*, 10, 149-171.
- Freeman, R. E. 1984.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perspectiv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Hart, S. 1995. "A natural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986-1014.
- Huntington, S. 1965. "Political Development Political Decay", *World Politics*.
- Kivima, P. 2007. "The determinants of environmental innovation: The impacts of environmental policies on the Nordic pulp, paper and packaging industries", *European Environment*, 17, 92-105.
- McWilliams, A., D. D. Van Fleet and K. Cory. 2002. "Raising rivals' costs through political strategy: An extension of the resource-based theory",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39, 707-723.
- McWilliams, A. and D. Siegel. 200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theory of the firm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 117-127.
- Rothenberg, S. and S. Zygliopoulos. 2007. "Determinants of environmental innovation adoption in the printing industry: The importance of task environment",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16, 39-49.
- Waldman, D., D. Siegel and M. Javidan. 2004. "CE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orking Paper, Rensseler Polytechnic Institute.

○ 인터넷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선비.
-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유래.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노블레스_오블리주
- 네이버 지식백과. [오목대] 노블레스 밀라드, 『전북일보』, 2008년 2월 29일.
- 네이버 지식백과. 설원태, 「李정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경향신문』, 2008년 3월 10일.

네이버 국어사전. 사대부. 2017년 8월 25일 검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세속오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훈요십조 [Hunyo-sipjo, 訓要十條]

[토론문]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역사적 접근

송시형

(국제사이버대학교 엔터테인먼트학과 조교수)

1.

이 논문의 연구주제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쉽지 않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사회에서 제시된 개념을 사용하여 역사적 사실들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개념은 시민사회의 등장 이후 형성된 개념으로 고대나 중세에는 존재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 자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역사적 실증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쉽지 않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회지도층의 책임정신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문제제기는 매우 시의적절해 보이며, 또한 그 의의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2.

토론자는 이 논문에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개념 사용과 관련한 것입니다.

2-1.

첫째, '사대부'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사대부는 사회계급이 아니고 사(士)계급이 없어진 다음 등장한 정치 집단입니다. 한국사에서 사대부의 등장은 고려중기 무신정변 때 문신들이 대거 숙청당한 이후 지방 중인 세력을 대거 발탁된 것에 기인합니다. 당시에는 유가철학과 관련이 없었고, 이후 이들이 고려 말 안향에 의해 유입된 남송조의 성리학을 공부한 후 조선건국의

주역이 된 이들입니다. 조선 건국 후 사대부라는 호칭은 없어지고, 훈구와 사림으로 나뉘었습니다. 중종 이전에는 훈구파, 이후에는 사림이라고 칭하며 주로 사림을 선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논문에서 이런 역사적 맥락을 좀 더 상세히 언급해 주면 학술적으로 완성도가 더 높아질 거라 사료됩니다.

2-2.

둘째, '사군자(士君子)라는 표현에 대한 것입니다. 사군자는 일본 성리학연구에서 사용할 뿐, 한국 철학계의 유학 연구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본 성리학의 경우 임진왜란 이후 퇴계 이황의 사상을 수입한 것으로, 유가철학의 연구 영역에서는 극히 일부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사군자(士君子)를 사용할 때는 (논문에서 기술한 내용과 달리) 선비와는 무관하게 군자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사군자라는 표현은 유학 경전인 사서(四書)에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으로 학문적 정통성이 낮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맹자가 선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맹자가 살았던 시대(전국시대)에는 선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또한 관련 연구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초 한국소설에 나타난 노인문제*

양윤모

(극동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I. 서론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고령화 수준을 측정했을 때,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사회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에 달하는 사회를 말하며, 2018년부터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 앞서 인구변천을 끝내고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등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10여 년간 급격하게 낮아진 저출산 현상에 의해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의 속도를 고려했을 때 한국사회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더 짧은 시간 내 인구고령화에 의해 수반되는 다양한 사회갈등과 문제점들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황선재, 김정석, 2013: 202; 정환수, 2013: 336).

따라서 고령화로 인한 노인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뿐 아니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현세대 65세 이상 노인들이 경험하는 대표적 사회적 문제로 4고를 들고 있다. 여기서 4고(苦)는 병고(病苦),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로 현세대 노인들이 생활 속에서 직면한 어려움이라 볼 수 있다. 4고의 내용을 보면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실,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은퇴이후 사회적 역할 축소에 따른 역할 상실감을 의미한다(이주미, 김태완, 2014: 64).

* 이 글은 『문학과 의식』 2012년 겨울호 및 『문학과 의식』 2013년 봄호에 수록했던 계간평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보완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문학 작품 중 소설에 나타난 노인 문제를 고찰 해 봄으로써 통계 및 언론 보도에 의한 자료로서의 노인문제가 아니라 문학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고산병>(이경희, 『문학과 의식』, 2012, 가을), <창 밖 풍경이 보이는 흔들의자>(황병욱, 『문학과 의식』, 2012, 가을), <세상의 모든 저녁>(임철우, 『문학과 사회』, 2012, 겨울)을 대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011년의 한국의 고령화 정도는 11.2%로 노인인구 7%인 고령화사회와 14%인 고령사회의 중간 정도의 지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의 작품들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이행기에 나타날 수 있는 노인문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즉,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의 중간시점의 상황을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2012년에 발표된 소설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전후, 1960년대이후 산업화 시대에도 노인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 재와 같이 시대적으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지는 않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령사회로 이행해가는 한국 사회의 노인문제를 소설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노인문제는 고립감과 우울감, 노인빈곤과 고독사 그리고 숨겨져 있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노인의 성문제이다. 물론 문학작품이라는 점에서 이들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첩되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이들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II. 노인의 사회적 고립의 문제

노년의 삶은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롭게 출발하기에는 늦었다는 점에서 지나간 삶을 되돌아 볼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삶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에 후회와 회한으로 남게 된다.

황병욱의 <창 밖 풍경이 보이는 흔들의자>는 아들의 사업 실패와 집주인의 파산으로 아들네 집으로 들어오게 된 '김 노인' 내외의 삶을 보여준다. 식탁으로 특허를 받은 아들은 사업에 뛰어들고 사업 자금으로 자신의 집을 내준 김 노인은 집을 줄이고 세를 살게 된다. 그러나 집주인의 파산으로 경매처분 당한 집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고 아들집으로 오게 된다. 김 노인 내외는 아들집으로 이사해오면서 아들네 집의 전화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들네 식구가 없이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

잠긴 현관문은 두 노인이 나갈 수도 누군가를 들어오게 할 수도 없다. 누가 찾아와도 두

노인은 문을 열 수 없다. 옛날 문은 간단했는데 요즘 문은 뭐가 이리 복잡한지. 아무리 찾아도 문빚장이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밖으로 통하는 문 자체를 못 찾는지 모른다. 집안에 분명 두 노인이 있는데 밖에서는 그들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 (<<창 밖 풍경이 보이는 혼들의자>>, 『문학과 의식』, 2012, 가을: 123)¹⁾

아들네 집에 들어왔지만 노부부는 자신들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다. 아들네 식구는 모두 열쇠를 가지고 다니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열쇠가 없을 뿐 아니라 현관문이 너무 복잡해서 열지 못한다. 집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노년이 된 이후 다시 청장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상징한다. 또한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이들 부부의 존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하며 이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외로움과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노인의 고립과 외로움이 지각하는 고립과 외로움이 통제감과 삶의 만족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조사에서 고립과 외로움 모두 노인의 통제감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지, 2012: 171). 게다가 아들 방으로 오는 전화는 이들 부부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응답기가 대신 받음으로써 이들 부부의 존재는 집 밖에서 뿐 아니라 집 안에서도 타인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는 곧 사회적 고립과 더불어 가정내에서 역할의 부재를 의미하며 나아가 사회적 존재임을 타의에 의해 부정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김 노인은 아들네 집으로 이사 올 때 이미 예감하였다.

사층에 있는 아들집 계단을 오르며 김 노인은 이제 다시 저 아래로 내려 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생소한 곳에 갇혀버리는 기분. 그나마 집이 지하가 아니라 다행이었다. 밖이 보이니. (<<창 밖 풍경이 보이는 혼들의자>>: 125)

아들네 집이지만 그동안 살던 공간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새로 적응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인은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시도를 하기 보다 알지 못하는 공간에 갇혀버리는 것을 선택 아닌 선택을 하고 만다. 이는 김 노인 뿐 아니라 김 노인의 부인 손 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성당에 나가는 것은 영감탱이와의 끈질긴 인연의 끈을 빨리 놓고 싶어서인지도 몰랐다. 지

1) 최초 인용 시 저자, 제목, 출판사항을 기록하고 이후 인용시 작품명과 인용 면만 밝히기로 한다.

금은 새벽기도를 갈 수가 없다. 성당에 가려면 산 하나를 넘어야 한다. 버스를 타고 가야 하지만 버스 정류장까지도 꽤 거리가 멀다. 물론 밖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서 어떻게 가는지조차 모른다. 그나마 저 보기 싫은 영감탱이와 떨어질 수 있는 기회라곤 성당에 가는 것이었는데, 집구석에 배인 지긋지긋한 영감탱이의 냄새가 싫고 싫었다. 밖에는 영감이 없다. 성당이라는 곳. 거기까지 가는 길. 평온함은 밖에 있다. 영감이 권위적으로 자리하는 집에는 없다. (<<창 밖 풍경이 보이는 흔들의자>>: 127)

손노인은 성당에 다니며 정신적 평온함을 찾았지만 아들네 집으로 이사 온 후 성당으로 가는 길을 몰라 그녀 또한 집안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다. 가난한 삶과 권위적인 남편 때문에 고생한 그녀는 자신의 삶이 초라했음을 깨닫게 된다. 영감으로부터 떠나겠다고 생각했지만 떠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만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현 상황을 ‘돌다리는 건너 왔지만 지금은 돌다리가 물에 잠기어 찾을 수가 없 어 다시 돌아 갈 수 없는 길’ 로 표현한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물에 잠겨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돌다리인지도 모른다.

또한 이들 부부의 집 안에서의 생활도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가스레인지 조작이 미숙하여 그들은 원하는 음식을 해먹지 못하고 머느리가 외출하면서 식탁에 두고 간 떡을 먹는 것으로 점심 식사를 대체하고 만다. 전화 및 현관문 등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존재감 상실 뿐 아니라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는 이들 부부의 실존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젊은 시절 노름으로 전답을 날리고 집에서 쫓겨나 배를 타고 고향을 떠난 김 노인은 고향에 대한 끈을 스스로 놓아버렸다. 배를 탔을 때, 서울로 왔을 때 김 노인은 흙으로부터 떨어졌고, 흙에 대한 향수를 갖게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터의 텃밭을 발견하고 외출하려 하지만 구겨진 옷을 다릴 수도, 현관문을 열수도 없어 외출을 포기하고 만다.

김 노인은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다. 어둠과 고요함. 편안함과 따듯함이 느껴진다. 넉넉한 동굴 속을 김 노인은 자유롭게 헤엄친다. 빛이 보인다. 빛은 투명 유리가 된다. 투명 유리 밖으로 풍경은 묵묵히 소리 없이 펼쳐진다. 유리관 안에 김 노인은 갇혀있다. 김 노인은 유리 밖 풍경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 흙이다, 흙이야! 김노인은 이 양수를 터트리며 나가려고 한다. 온 힘을 다해 몸부림을 쳐보지만 우리는 깨지지 않는다. 우리는 고무처럼 늘어나면서 팽팽해진다. 김 노인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창 밖 풍경은 김 노인을 향해 손짓한다. 김 노인은 흔들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을 찾는다. 통으로 되어 있는 유리에는 전혀 틈이 보이지 않는다. 흙은 파도가 되어 김 노인에게 달려든다. 전신줄을 넘어 온 시커먼 사람이 풍경처럼 뒤에 서 있다. (<<창 밖 풍경이 보이는 흔들의자>>: 135-136)

결국 김 노인은 창밖을 보다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고 어둠 속에서 고요하고 편안한 감정을 느낀다.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에 떠있는 느낌을 느끼지만 이는 꿈에서만 돌아갈 수 있을 뿐 현실에서는 돌아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뿐이다. 오히려 현실은 전신줄을 넘어온 시커먼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들 부부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노인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은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약화되거나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이들 부부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있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아들의 집에 살면서 고립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노인들이 당면하는 문제들에는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문제, 여가의 문제, 노인복지 등이 있겠으나 노인의 빈곤문제는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 노인층이 두터워지고 노인들의 노동가치도 실질적으로 높아졌으므로 노인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65세 이후에도 건강한 노인들이 많으므로 노인들에게 일거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을 통해서 소일하게 되면, 우울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삶에 있어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그리고 특히 핵가족화 되면서 자식들의 직접적 봉양이 없으므로 자급해야 할 생계유지비 내지 생활비의 별이로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핵가족화 된 상태에서 노인들은 과거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외로움, 쓸쓸함, 무료함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과거보다 장수함으로써 여가생활의 필요성을 더 심각히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생활의 준비도 여가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노인 대다수의 실정이다(정환수, 2013: 337-345).

위의 작품은 노인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우울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제활동과 종교생활을 통한 사회생활과 가족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III. 노인의 빈곤과 고독사의 문제

한국 노인을 괴롭히는 문제들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빈곤의 문제일 것이다. 서구산업사회들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우선 한국사회의 노인집단은 다른 어떤 연령집단보다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인구 집단이 활발한 빈곤 탈출 양상을 보이는 것과 달리 노인집단은 일단 빈곤층으로 유입되면 빈곤으로부터 탈출이 어려운 즉 빈곤의 장기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체 빈곤가구 중 60대 이상의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52.8%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빈곤의 고령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전체가구 중에서 가구소득이 전체가구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비율을 뜻하는 빈곤율을 기준으로 한국의 65세이상 노인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년만에 4%p 증가했다(OECD, 2012).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상승추세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가장 높은 수치로서 OECD 평균인 12.4%의 약 4배이며 상대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미국(14.6%)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는 수준이다(이용우, 이미진, 2014). 2011년 OECD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노인층의 빈곤율은 45.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2위를 기록한 아일랜드(30.6%)보다 14.5%나 높고 30개국 평균(13.5%)보다 3배이상 높은 수치이다. 우리나라 전체 연령층의 빈곤율이 14.6%로 멕시코(18.4%), 스위스(17.5%), 터키(17.1%), 일본(14.9%), 아이슬란드(14.8%)에 이어 폴란드와 함께 공동 6위인 점을 고려했을 때 국내 노인층의 빈곤문제는 유독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황선재, 김정석, 2013: 204).

이처럼 노인층의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고, 이들의 빈곤율이 노인부부의 빈곤율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수는 4,383천명이며 이중 독거노인은 783천명으로 전체 노인의 17.8%에 달하는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윤신 외, 2011: 144). 이는 노인 5명 중 한명은 혼자 살고 있다는 것으로 독거노인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가구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른 노인가구 유형에 비해 노인독거가구의 자산빈곤율이 약 2~4배까지 높았다. 2011년 총자산 기준 노인독거가구는 절대적 기준 18.9%, 상대적 기준 59.5%로 노인부부의 5.2%, 26.4%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자산빈곤율이 개선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여러 자료들에서 보고된 것과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노인독거가구의 빈곤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가구 중 노인독거가구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주미, 김태완, 2014: 68). 그 이유는 빈곤한 상태의 독거노인의 경우 생활 환경이 열악하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고독사'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독거노인은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음과 동시에 고독, 빈곤, 질병의 문제나 가사서비스 원조 및 재가 보호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세대 속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나 간병, 정서적인 유대감 형성 등의 부양기능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취약한 상태에 있는 계층으로 특정지어지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고령자 통계에서도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에게 비해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비율이 높으며, 단체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특징을 보임으로써 일반 노인에 비해 다양한 자원이 취약한 일차적인 노인복지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0). 독거노인의 특성을 정리하면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위험에 처한 노인이 많으며, 단절된 관계망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양에서도 취약하며, 건강상태나 경제상태가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독거노인의 특성은 고독사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원인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김윤신 외, 2011: 146-147).

임철우의 <세상의 모든 저녁>(『문학과 사회』, 2012, 겨울)은 웅기장이었던 허만석이 유년기와 청년기에 부모님, 형, 누나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된 후 가업으로 웅기일을 이어가지만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방황하다 아내를 버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근대화 이후 양은그릇과 고무 대야의 등장으로 직장을 잃고 가난하게 살다 혼자 죽음을 맞게 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도시 뒷골목의 다세대주택 쪽방에서 혼자 사는 허만석은 ‘오늘 당장 죽어도 나를 알아볼 사람 하나 없는 처지’에 처해 있으며 이미 이웃의 고독사를 경험하게 된다.

알콜 중독자인 양아들이 죽었을 때도,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이국으로 떠났을 때도 용케 이겨낸 담배를 다시 시작한 건 지난봄이다. 아래층 황 씨의 시신을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하필 그였던 것이다.

변기에 걸터앉은 자세 그대로, 천장을 향해 고개를 쳐든 채 뻗뻗하게 굳어있던 황 씨. 그보다 두 살 아래인 황 씨는 반병어리가 아닌가 싶게 입이 무거운 위인이었다. 한때는 대전에서 전구 공장을 한 적도 있는 전문대학 출신이며, 말투로 보아 충청도가 고향일 거라는 정도만 짐작할 뿐이었다. 서울에 아내와 두 아들까지 있는 눈치였는데, 왜 늘그막에 부랑자처럼 쪽방촌을 전전하며 사느냐는 질문은 아예 꺼내보지 못했다. 쪽방촌 인심이란 게 원래 그렇다. 여기까지 굴러들어 오기까지 저마다 사연 없고 내력 없는 사람이 없을 터이다. 이름도 고향도 나이도 저쪽에서 먼저 입을 열지 않으면 그만이다. 피차 눈앞에 있는 듯 없는 듯, 질문도 해명할 필요도 없이 그림자 보듯 자내는 게 속이 편하다. 손바닥처럼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 몇 해를 지구 반대쪽 사람들인 양 지낸다 해도 특별히 이상할 것 없는 동네다. (임철우, <세상의 모든 저녁>(『문학과 사회』, 2012, 겨울): 168)

그가 독감으로 앓느라 보름동안 방안에서 꼼작 못하다 찾아갔지만 황씨는 이미 부패가 진행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경찰은 열흘정도 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황씨의 죽음을 겪으며 허만석은 자신에게도 죽음이 닥쳐올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그는 한 달 가까이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황 씨의 무릎에 걸려있던 후줄근한 팬티와 앙상한 종아리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렇듯 오랫동안 홀로 내버려진 채 변기 위에 걸터앉아 썩어가다니. 황 씨가 더없이 측은하고 불쌍했다. 그는 누구를 향한 것인지도 모를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날 이후 그는 부쩍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새삼 죽음 자체가 두려운

건 아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죽고 난 이후 추한 육신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좋을까. 최소한 그건 자신이 지상에서 저야 할 마지막 의무라고 그는 믿고 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직 막연하고 혼란스러울 뿐이다. 최소한 황 씨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순 없다는 생각만 절실하다. 사는 일이야 잘못 살았지만, 죽는 일 만큼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죽고 싶다. 그러자면 우선 병들지 않아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세상의 모든 저녁): 169)

가난하고 굴곡진 인생이었지만 어떻게 살아왔든 죽을 때만이라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죽고 싶다는 허만석의 생각은 ‘고독사’ 를 원하는 노인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독사는 생명의 포기라고도 볼 수 없다. 고독 자체는 자기결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고독을 선택한 이들이 고독사를 선택하였다고까지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독, 즉 홀로 1인가구를 구성하여 생활하는 것이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결국 외로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고독의 선택이 결국에는 고독사의 선택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도출될 것이다. 한편으로 고독이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통계와 자료들에 따르면 고령자들은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많은 인구들도 홀로 거주하기를 선택하고 있음도 드러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실제로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홀로 살게 된 사람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고독사는 현실적으로 개인의 선택이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인 경우가 더욱 많다고 할 수 있다(권혁남, 2013b: 474-475).

고독사에 대한 정의에 대해 학술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거지에서 홀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사망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우리보다 고독사에 대한 문제가 먼저 제기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고독사라는 용어는 ‘아무에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고, 그 후로도 상당기간 방치되는 죽음’ 이라고 정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면 고독사란 ‘혼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시신이 사망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 라고 해야 할 것이다(김윤신 외, 2011: 152; 권혁남, 2013b: 467; 강기철, 손종윤, 2017: 6-7).

독거노인의 경우 누군가 발견해주기 전까지 죽었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독거노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죽음은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고독사’ 라는 말도 있듯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죽음마저도 쓸쓸할 뿐이다. 허만석은 결국 혼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영혼은 자신의 죽음을 알리려 하지만 일주일째 그의 죽음을 알아주는 이는 없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노인복지관에서 보내주는 가정봉사원인 복순씨의 눈에 띄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더라도 장례문제를 예상하고 통장과 함께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언장을 그녀 앞으로 남겨놓았다. 하지만 그녀도

가정문제로 인해 그를 찾아오지 못한다. 가족도 없는 결국 그는 저승으로 가야할 시간이 다되어 가지만 자신의 시신을 놓아두고 가야하는 현실 앞에서 울고 있을 뿐이다.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이다. 아무려면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분명 복도에까지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을 텐데…… 그래도 오늘 그는 다소 느긋해진 기분이다. 오늘은 화요일, 복순 씨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날이다. 복순 씨에겐 더없이 미안한 일이지만, 차라리 복순 씨의 눈에 띄는 편이 나올지도 모른다. 최소한 복순 씨만은 슬퍼해 줄 테니까. (<세상의 모든 저녁>: 194)

오늘, 복순 씨는 오지 않을 것이다. 내일, 모레, 아니 한참 더 늦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복순 씨는 꼭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찬장 서랍 안에 넣어둔 봉투를 발견하고 열어볼 것이다. 그 안에 예금 통장 두 개와 복순 씨 앞으로 써놓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다. 통장 하나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급여 명세표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288만 원의 잔고가 찍힌 그의 비밀통장이다. 목포를 떠나올 때, 집을 팔고 받은 돈에서 약간만을 제하고 며느리에게 모두 넘겨주었다. 친정 오빠가 있는 브라질로 아이와 함께 살러 간다면서, 그녀는 아이 몫의 유산을 미리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그때 떼어둔 돈에서 쪽방 보증금만 빼놓고, 나머지는 지금껏 통장에 꼭꼭 묻어두었다.

<복순 아줌마 만약에 내가 급작스레 죽든지 하게 되면 이 돈을 장례비용에 써주시기 바라오. 혹여 잔돈뿐이나마 남게 되거든 복순 씨 속옷 한 벌 사 입도록 하시오. 화장하고 나온 뺨가루는 어디 한적한 바다에 뿌려주시오. 진정 미안하오만 나한테는 복순 씨 말고는 달리 부탁할 사람이 없구려. 그동안 고마웠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오. 허만석 씀> (<세상의 모든 저녁>: 195-196)

고독사를 원하는 노인은 없을 것이다. 혼자 살더라도 쓸쓸히 죽음을 맞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독사가 언론에 보도 되면서 일반적으로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수일 혹은 수개월 후에 발견된다는 센세이셔널한 현상에 주목이 집중되기 쉽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주의해서 보면 죽음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소외와 고립 등의 사회관계 문제, 즉 가족, 친족, 친구, 지역으로부터 고립되고 여러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문제가 배후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야마구치 코지는 ‘누군가 돌보지 않은 죽음’은 생활 상황에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지만 ‘혼자 자택에서 죽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만약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을 때 그것이 문제시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권혁남, 2013a: 253-256).

고령화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고독사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인간의 사회적인 인권,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 그리고 생명권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바라보는 태도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노인의 인권은 곧 일반인들의 미래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과 홍보, 교육 등의 준비는 현재 당면한 고독사의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미래에 다가올 고령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대비책이 될 것이다(권혁남, 2014: 81).

IV. 노인의 성 문제

노인의 성은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숨길 수도 없고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다. 노인의 몸은 제도적으로 사회구조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어서 우리 사회 지배적 성담론은 젊음의 성에 맞춰져 있어 노인의 성은 주변화되어 있다(이동욱, 2010: 50; 장은미, 한희정, 2017: 111). 하지만 통계 자료를 보면 노인의 성매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성매매 금지에 따른 조치 이후에도 성구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2010년 사이에 61세 이상 성매매 위반 범죄자 수는 18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 한 성생활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2%가 성생활을 한다고 하였으며, 이들 중 성병 감염 빈도는 36.9%였으며, 성매매 시 콘돔 사용을 하지 않는다가 44.7%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2). 노인들의 성 문제는 수면 아래 가리얏아 있어 공론화 되지 않았지만 노인의 건강 문제 및 성매매를 하는 노인여성의 빈곤과도 관련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경희의 <고산병>(『문학과 의식』, 2012, 가을)에서는 노인매춘의 문제가 언급되지만 이를 사회문제화하지 않고 성적 욕망을 통해 젊음의 활력을 되찾기는 어렵겠지만 노년의 쇠약을 극복 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겨운 체력의 ‘그’ 는 이미 정신적 육체적으로 쇠약한 상태다. 아파트 단지의 노인정 행사에도 잘 참여하지 않고 마지못해 일 년에 한 두번 참가할 정도로 의욕과 열정이 없는 상태다. 반면 그의 아내는 활력이 넘쳐 연금으로 풍족한 생활을 함에도 앓아눕지 않는 이상 여간해서는 파출부 일을 거르지 않을 정도로 왕성한 체력의 소유자이다.

아내가 외출한 후 그는 관리사무소 앞에서 벌어지는 내기 장기를 구경하러 나갔다. 벽지가게 사장 최씨는 늘 지면서도 관리소장을 상대로 내기 장기를 두고 주변 사람들은 내기에 진 최씨로부터 맥주, 음료수 등을 얻어먹는 재미로 이들의 내기를 부추긴다. 그는 관리소장의 박수 소리에 도 깜작 놀라 음료수병을 떨어뜨릴뻔하여 주변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관리소장은 그에게 기

가 약해 그러니 운동을 권하고 사람들은 등산을 하라면서 작모산을 추천해준다. 그는 ‘아파트 계단조차 오르기 힘겨운 체력에 산을 오른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벽지가게 최씨가 박소장이라는 오르지 못할 산에 계속해서 도전하듯’ 건강을 위해 작모산에 도전해보기로 한다. 하지만 막상 작모산행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에 올라타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언제부턴가 그는 작은 소리에도 놀라는가 하면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겁을 먹어 안절부절 못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공연히 주눅이 들어 패배자처럼 굴었다. 버스가 당장 출발할 듯 거칠게 부르릉거렸다. 버스에 올라타야 하는데 그는 엔진소리와 경유냄새 때문에 벌써부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당장 타지 않으면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빛 독촉하듯 바라보는 운전사의 기에 눌려 그는 선뜻 버스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뒤에 있던 노인 몇이 그를 제치고 먼저 버스에 오르고 난 뒤에도 그는 발이 떨어지지 않아 버스 손잡이를 한참이나 붙들고 서 있어야 했다. (<고산병>, 『문학과 의식』, 2012, 가을: 113)

누군가 밀어 올려 버스에 올라탄 그는 김종구 덕분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 노인정에 행사가 있을 때만 나오는 김종구는 평판이 좋지 않지만 그는 김종구와 같은 고향과 같은 군대 출신이어서 친하게 지냈다. 작모산으로 가는 김종구는 들떠 있었고, ‘칠십이 다된 노인이 아니라 스무살 청년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김종구는 그에게 ‘몸만 병든게 아니라 마음이 더 병들었다며, 나이는 정신이 먹는’ 것이고, ‘나이 좀 들었다구 별별기면 황천행이 코앞’이라고 힐난한다. 작모산에 도착한 그는 아카시아꽃의 향기에 멀미가 날 듯하여 길가에 주저앉고 만다.

산이 하도 좋다가에 궁금하였고 좋은 공기나 마시며 한나절 쉬고 갈 생각이었다. 진한 아카시아 향기만 아니라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그는 고산병에 걸린 듯 숨쉬기가 어려웠다. 그에게 산은 그녀(아내: 필자주)처럼 힘든 상대였다. 산이 유혹한다고 무작정 휘휘 오를 수는 없었다. 그녀라는 산은 마당 뒤꼍에 서있는 작은 감나무가 아니었다. 뒷산처럼 낮아 보이지만 쉽게 오를 수 없는 고산 봉이었다. 그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산을 끼고 살지만 산을 물리칠 수도 산에서 떠날 수도 없었다. (<고산병>: 117)

작모산으로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김종구의 말에 그는 기력이 쇠잔해져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린 자신이 비참하다고 느낀다. 김종구는 그에게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하며 작모산 계곡에 ‘선녀들이 살고 있’으며 그 선녀들 덕분에 건강해질 수 있다는 작모산의 비밀에 대해 알려준다. 그는 말로만 듣던 노인매춘이 작모산에서 벌어지는 현실에 당황하지만 김종구를 보자 오기가 생겨 끝까지 가보기로 한다.

내가 우리 점순씨 소개해줄게. 뜬금없는 소리에 그가 물었다. 가보면 아니까 얼른 올라가거나 해. 무슨 소리야? 진자 여잘 만나러 가는거야? 작모산이 좋다는 게 그런 뜻이었어? 그가 꼬치꼬치 묻자, 김종구가 작모산의 비밀에 대해 털어 놓았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넓은 계곡이 나타나는데, 그 계곡에 선녀들이 살고 있다네. 작모산을 찾으면 건강해진다는 그 비법이 바로 선녀들 덕분이야. (중략) 노인매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가 오르고 있는 작모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 당황스러웠다. (<고산병>: 118)

김종구가 들어간 노란 집에서 가벼운 움직임과 함께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목을 축인 그는 거칠어지는 숨결을 조심스럽게 달래며 여자 옆으로 다가갔다. 여자는 작모산의 마지막 봉우리인 셈이었다. 멀미나는 아카시아 숲을 오르고 계곡을 건너 도착한 곳이었다. 젊어지고 건강해진다는 산이 바로 이 산이었다. 그는 산에 오를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마음과 달리 그는 점점 현기증이 일며 속이 울렁거렸다. 아직 산 탈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숨이 턱턱 막히면서 식은땀이 흘렀다. (중략) 할거야? 안 할거야? 여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후텁지근한 텐트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만 같았다. 여자가, 아니 김종구가 만들어 내고 있는 소리 때문이었다. 그 소리가 그를 사납게 흔들었다. 빨리 해! 여자의 핀잔에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몸이 먼저 산을 타기 시작했다. 순간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재촉하는 여자만 보였다. (중략) 그는 아랫도리가 서서히 뜨거워지면서 다리에 힘이 붙는 걸 느꼈다. 오늘날만큼은 고산병에 시달리지 않고 산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았다. 까짓 거 죽더라도 오늘은 기어이 산에 오를 작정이었다. (<고산병>: 120-121)

최씨가 매년 패하면서도 관리소장과의 내기장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 무모한 면이 있지만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은 노인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도전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씨의 도전은 불가역을 가역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볼 수 있고 숙명을 거역하는 숭고한 선구자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반면 기력이 쇠약한 그는 육체만 약한 것이 아니라 정신도 이미 노쇠하여 김종구와 같은 인물을 이해할 수 없고 김종구로부터 황천길이 코앞이라는 핀잔을 듣게 된다. 정신과 육체의 노쇠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노인매춘이라는 사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는 그 상황을 통해 불가역적 상황을 되돌리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조사에서 박카스 이쭈마를 대상으로 성구매를 하는 남성들의 성구매 동기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그 내용은 1) 대상이 없어 선택한 불가피한 성구매, 2) 성생활에 대한 굳은 신념, 3) 고독감 해소, 4) 강한 성적 욕구였다(이호선, 2013: 229). 2)번의 경우 용불용설에 입각하여 성생

활을 지속해야 건강할 수 있고 오래 살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주는 것처럼 작품의 ‘그’도 같은 이유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 작모산이라는 가상의 공간이지만 도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산속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노인대상의 성매매가 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박카스이쭈마란 종묘 혹은 공원, 전철역 근처에서 건강음료를 팔러 다니는 듯하나 실제 노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일컫는다. 박카스이쭈마는 이미 그 이름도 ‘커피이쭈마’, ‘다람쥐이쭈마’, ‘뚝자리이쭈마’, ‘관악산모포부대’, ‘낙타부대’ 등 다양하다. 그만큼 수도 많아지고 점차 노인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이 여성들은 대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피해 여성과는 그 이름과 특징을 달리하고 있다 (이호선, 2013: 219-220).

노인들의 성 구매 동기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단순히 개인적이고 성적 탐닉만은 아니다. 고독감이라는 사회적 요인이 함께 하고 있다. 노년기에도 여전히 유지되는, 그러나 제대로 성취되지 못하는 인간의 욕구들, 즉 생리적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잠재된 욕구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박카스이쭈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남성노인들의 성 구매는 늘어난 수명과 좋아진 건강, 의학학의 발달 및 노인소외가 여성빈곤으로 유지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상황과 만난 자리이다.

남성 노인들의 성에너지가 건강하게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없는 한, 여성 노인들의 빈곤이 있는 한 이 두가지는 노인 성매매 현장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 노인이 무성의 존재라는 편견과 자신들의 에너지를 감출 수 없는 남성노인, 그리고 빈곤의 자리에서 불가피한 선택 속에 들어와 있는 여성 노인들이 만들어가는 기이한 현상은 욕망과 빈곤, 그리고 사회적 소외가 한데 엉겨 있는 모양새이다(이호선, 2013: 231).

노인들이라고 해서 성매매가 묵인되고 성매매를 하는 노인여성들이 빈곤하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이 묵인되는 것은 곤란하다. 하지만 노인들의 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V. 결 론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곧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고령인구의 증가는 경제 및 의학의 발달에 힘입어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저출산 기조로 인해 노인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

입이 서구 국가들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이행도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우리에게 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문제는 건강, 빈곤, 고립감, 우울 등의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가 대표적이었다. 노인들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노인의 특성 상 신체 능력이 저하되고 사회적 활동의 기회가 줄어들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해가는 중간 정도의 시점인 2011년에 발표된 소설 작품에 나타난 노인의 문제를 통해 현실의 노인 문제를 되짚어보는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소설에서 추출할 수 있는 노인의 문제는 경제적 능력의 상실과 고립감, 우울감, 무력감의 증가, 노인빈곤과 독거노인의 고독사, 노인의 성 문제 등이었다. 고독사의 경우 독거노인의 빈곤문제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인 문제는 노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노인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면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소홀히 해온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노인문제를 방치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노인문제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점에서 미래에 다가올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기본자료

- 이경희. 2012. “고산병”, **문학과 의식**, 가을호.
 황병욱. 2012. “창 밖 풍경이 보이는 흔들의자”, **문학과 의식**, 가을호.
 임철우. 2012. “세상의 모든 저녁”, **문학과 사회**, 겨울호.

○ 참고자료

- 강기철·손종윤. 2017. “고독사 통계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 **일본문화연구**, 61, 5-25.
- 권혁남. 2013a. “고령화시대 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한 윤리적 반성”,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논총**, 35, 245-277.
- _____. 2013b. “고독사에 관한 법과 윤리적 쟁점 : 개인의 선택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38, 463-479.
- _____. 2014. “노인 고독사 연구 및 접근의 관점 : 인권”, **생명윤리**, 15(1), 73-83.
- 김윤신·이철민·남궁선주·김혜경. 2011.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연락망의 효과성 연구”,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50(2), 143-169.
- 김태완·이주미·정진욱. 2015. “노인의 빈곤과 우울에 관한 연구 : 다차원적 빈곤개념을 적용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35(3), 71-102.
- 김태완·이주미. 2014.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 실태와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12, 64-73.
- 김호식·정미녀·손경숙. 2005.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세대간 해결방안”, **한국정책과 학회보**, 9(1), 73-93
- 이동옥. 2010. “한국 노인의 성담론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한국여성학**, 26(2), 41-69.
- 이용우·이미진. 2014.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 노인빈곤 심각성의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복지학**, 48, 291-318.
- 이현지. 2012. “재가 노인이 경험하는 고립과 외로움이 삶의 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2, 157-177.
- 이호선. 2013. “박카스이쭈마 대상 성구매자 남성노인의 성구매 동기”,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4(2), 215-239.
- 장은미·한희정. 2017. “존재하지만 존재 않는 타자들의 공간 : 영화 <죽여주는 여자>의 담론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4, 99-123.
- 정환수. 2013. “한국사회 노인문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 **철학논총**, 71, 335-354.
- 황선재·김정석. 2013. “노년기 소득불평등 분해 분석”, **한국사회학**, 47(4), 201-226.

[토론문]

21세기 초 소설에 비친 한국의 노인문제

오양진

(추계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이 논문은 “한국은 저출산 현상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건강, 빈곤, 고독, 무력감 등이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런 인식의 심각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학작품에 나타난 노인문제” 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급박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이전에 먼저 현안이 되는 사회적 문제의 중핵들을 실감 있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문학적 형상이 드러내고 있는 ‘노인문제’ 에 주의를 기울여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된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논의의 서두에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왜 문학작품을 통해 살펴볼려는 것인지 일정한 논리의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고산병〉(이경희, 『문학과 의식』, 2012, 가을), 〈창 밖 풍경이 보이는 흔들의자〉(황병욱, 『문학과 의식』, 2012, 가을), 〈세상의 모든 저녁〉(임철우, 『문학과 사회』, 2012, 겨울)을 대상으로”,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노인문제의 심각성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다. ‘노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 와 ‘노인 빈곤에 따른 고독사 문제’ 와 ‘노인의 성문제’ 가 그것이다.

논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복합적인 문제” 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문제들이 하나의 텍스트

에 대응하여 각각의 장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문제의 심각성은 그 복잡성에서 오고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서적 고립과 경제적 고립, 그리고 고독한 죽음과 안쓰러운 성, 이 모든 노인문제의 심각성은 그것들이 별도로 존재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서로 얽혀 문제의 병리를 더욱 깊어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온다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문학작품은 단순한 문제의 진단이 아니라 앞선 노인문제들의 복잡한 상관성을 문학적 형상을 통해 보여준다는 예술적 이점이 아니고서는 논의의 대상이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리라고 본다. 좀 더 세밀한 주의와 정치한 분석을 통해 문학적 형상에 주목하는 이점이 실제 서술을 통해 발현된다면 이 논문은 그 의의와 가치에 값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